

## 화재의 컨설턴트 소개

### 심상범 기술지도사 ▶▶▶



### 생산성 관리 체계 확립 시급!

생산성이란 생산력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산에 투입된 분량과 이것에 의하여 산출된 분량과의 상대적 비율의 형태로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노동, 기계와 원료, 설비 등 '생산의 제요소를 유용물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생산성 관리란 생산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공수 효율 분석 관리, 생산 능력의 원인 분석 등

제반 생산성의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생산성 관리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종합생산성연구소 심상범 소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게 생산성 관리라는 측면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실적 관리에 불과한 생산 관리정도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성장, 물가 상승의 불황 요인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체계적인 생산성 관리 없이는 기업 경쟁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며 생산성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생산성 관리 지표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와 정확성 부족 그리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심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 설비 대비 생산성은 평균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 설비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에서 45%~60%는 Loss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70%~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생산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CEO들의 생산성 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인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라며 생산성 관리의 체계적인 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현장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종합 컨설팅에 역점

한국종합생산성연구소 심상범 소장이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계기에서다. 삼성전자 20년 근무 기간 중 10

여년간을 외국의 유명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선진 경영 컨설팅 노하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를 퇴사한후, 협력업체들의 경영 및 생산성 낙후 문제를 절실히 느껴 1999년, 비로소 한국 종합생산성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 전문 위원의 구성만 보더라도 전원이 삼성전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대림대학 산업시스템학과 겸임교수로서, 한국능률협회 전문위원으로서 후진 양성에 주력하던 심상범 소장은 올해부터 (사)한국기술경영컨설턴트협회 경기지회장으로 취임하여 협회, 연구소, 경기도 중소기업청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중책으로 여기던 중소기업 현장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밤낮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생산성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지표화, 숫자화 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 및 접목이 불가능 했던 부분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도록 개발해 각 공장별 생산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적용. 시사각

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을 평가, 지도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심 소장은 “현재 전국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경기도 지역에 약 30%가량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CEO들은 컨설팅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업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컨설턴트들의 자질도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저희 한국종합생산성연구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40명에 달하는 컨설턴트 회원을 최대 활용하고 이들에 대한 선진 컨설팅 기법교육, CEO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중요 계획으로 현장지도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 자동차 등 부분별로 CEO 경영 혁신 실적 발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협회, 연구소, 경기도 중소기

업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오직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 전하는 상황에서 컨설팅 기반이 미약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지원사업이 그 효과를 거두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개선된 지원 제도로 그 활용이 용이해진 반면 제도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 할 위험에 놓여있다.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한층 의욕이 넘치는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발 빠른 움직임과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종합생산성연구소의 힘찬 도약이 있기 때문이다.